



2면
전북자치도-세만금청 '맞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음 3월 16일) 제349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민생으로 한걸음... 도민에게 온기를...

전북자치도,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추진

위기극복·고충해결·일상 등 3대 민생분야
총 774억 긴급 추가 투입... 제도개선도 추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 도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이 시급한 지역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김관영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 위기극복 민생일보 △ 고충해결 민생일보 △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

된다. 예산사업 외에 제도개선 등도 추가돼 민생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 이차보전 등 정복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서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병을 완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브리핑을 갖고 있다.

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릴 예정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

화하는 데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야간밥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

물준 속도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돼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우리 도정은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할 것이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생활인구 증가
관광경쟁력 확보

전북자치도, 문체부
위케이션 사업 공모 선정

전북자치도가 문체부의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4년도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고창군이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프로그램 운영 2억원, 시설조성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위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을 제시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케이션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 준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일과 삶이 있는 위케이션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케이션 참여자 모객에 나선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북 위케이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케이션 정책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23일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농촌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 해소 지원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육성 기관이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들어서는 지원센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인

김제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첫 삽'
국비 70억 등 총사업비 140억원 투입... 내년 3월 준공 목표

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립공사는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58㎡

규모로 추진되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농촌의 지역공동체와 특화공동체, 농촌돌봄농장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게 된다"며, "농촌지역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을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도의회 농산임경제위원회 나인근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